

2014년 60시간 영화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고신대학교 문화선교학부



금년에 3회를 맞은 "60시간 영화제".

이번에는 지난 5년간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가 배출한 1기에서 10기까지의 졸업생들과 고신대 문화선교학부가 함께하였다.

참가자들에게 공통의 필수제작요소를 제시하고 장르를 추천·선정하여 3박 4일간 기획, 각본, 촬영, 제작, 시사회까지 진행되는 60시간 영화제는 영상 속에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할 기독교 미디어 군사를 세우는 실제적인 훈련 프로그램이다. 각 영상은 CMCA(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홈페이지(<http://cmca.worldview.or.kr>)에서 볼 수 있으며, 10월 6일부터 16주간 하반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이하 기미아)가 진행된다.

60시간 영화제 참가자 공통 필수제작요소

구분	내용
주제	너의 목소리가 들려
기획의도	혼란한 사회 속에 내던져진 우리에게 들려오는 도둑의 목소리. 우리를 인도하는 샅꾼 목자는 누구(혹은 무엇)입니까?
주인공 이름	남자: 이종석 여자: 이보영
영화 속 필수 대사	"양은 그 음성을 들어나니" (요 10:3)
필수 로케이션	바다
필수 소품	열쇠
장르 (추천)	로맨스 / 판타지 / 스릴러 / 액션 / 코미디 / 페이지코다큐 / 드라마 / 시대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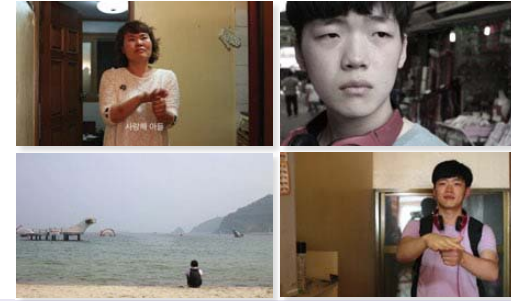
기미아 1조

제목: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장르: 드라마

줄거리: 늘 헤드폰을 끼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종석. 그런 종석에게 엄마는 늘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는 차갑기만 하다. 하지만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라디오에 사연을 쓰는데...

주소: <http://cmca.worldview.or.kr/gallery/videos/document/3697>



기미아 2조

제목: HIM

장르: 판타지

줄거리: 하경은 홍콩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친구인 보영에게 집을 봐달라고 부탁한다. 떠나기 전 휴머니이드는 절대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보영은 결국 휴머니이드를 작동시키게 된다. 그렇게 보영은 잘생긴 휴머니이드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주소: <http://cmca.worldview.or.kr/gallery/videos/document/3698>



기미아 3조

제목: 목소리 너머

장르: 시대극

줄거리: 친구와 바다에 놀러가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보영은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건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1992년에 살고 있는 미혼모 종석. 원치 않는 임신으로 절망하여 생을 마감하려던 종석은 이 전화 한통으로 변화를 맞게 되는데...

주소: <http://cmca.worldview.or.kr/gallery/videos/document/3699>





고신대 1주

제목: 그게! 그게! 알고 싶다

장르: 페이크 다큐

줄거리: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지금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가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생활고에 시달리는 종석과 명품이 갖고 싶은 보영은 의문의 문자 한 통을 받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주소: <http://cmca.worldview.or.kr/gallery/videos/document/3700>



CMCA 60시간 영화제 후기
함께, 더불어

관람형 (기미아 271)

고신대 2주

제목: 쌈 & 쌈

장르: 액션

줄거리: 신앙 수련회에 참석한 종석에게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보영의 전화가 걸려온다. 보영이 종석에게 무언가 고백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꺼지고, 서둘러 배터리를 갈아 끼우려 하지만 수련회 진행측에 휴대폰을 빼앗기고 만다. 보영의 고백이 궁금했던 종석은 마침 문이 열려 있는 진행측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빼오기로 결심하는데...

주소: <http://cmca.worldview.or.kr/gallery/videos/document/3701>



고신대 3주

제목: 단 한 가지 방법

장르: 코미디

줄거리: 화장실이 급했던 보영은, 잠겨 있는 화장실 문에 좌절한다. 마침 종석이 의문의 열쇠를 들고 나타나지만, 정난을 치다가 잃어버리고 만다.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한 보영과 종석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는데...

주소: <http://cmca.worldview.or.kr/gallery/videos/document/3702>



고신대 4주

제목: 조별 과제

장르: 로맨스

줄거리: 풋풋한 새내기 종석과 보영. 조별 과제를 하다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한편 조장은 무책임한 조원들에게 모이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다. 하지만 그날은 종석과 보영이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 여행을 무조건 가야 한다는 보영. 그런 보영과 조별과제 모임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종석, 과연 종석의 선택은?

주소: <http://cmca.worldview.or.kr/gallery/videos/document/3703>



“영캠 못오냐?”

짧고 간결한 장유진 PD님의 카톡 문자에 약간의 망설임과 설렘이 교차하면서 선택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대학원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어, 학교에서 영상 장비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씩 밤을 지새워야 한다는 것이나 단시간에 시나리오 작업부터 촬영·편집까지 해야 하는 상황들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영상캠프에 참여하면 영상 촬영 기법부터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까지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맥북 가방과 카메라 가방, 삼각대와 개인 짐을 넣은 캐리어를 들고 집에서 용산역으로 이동할 때까지는 짐만큼 마음의 부담도 컸지만, 막상 반겨주시는 장PD님과 아카데미 동문들을 만나니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부산 고신대에서 고신대 학생들과 아카데미 동문이 어우러져 영상제를 시작하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럿보다 혼자 만드는 영상이 결과물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합심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문홍철 교수님과 강진구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홍보물 영상 등을 만들 때 누가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기획하고 감독하여 만드는 것이 더 편하고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작업하다보면, 이합집산 되기 쉬우니 어느 정도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기미아의 전설적(?) 기수인 271이자 참가자 중 최고 만행이라고 다섯 명으로 구성된 팀의 조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조는 맥 유저들 중심으로, 현재 PD일을 하고 있거나 영상제에 이미 여러 번 참가했던 조원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10대인 막내까지. 개성이 각기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르와 여분의 장비는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장르는 시대극을, 장비는 수중 카메라와 필요 없을 것 같은 슬라이트를 두 개나 뽑았습니다. 다소 실망한 상태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간 우리는 서로 의견을 냈지만 어떤 것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마다 취향이 있다 보니 동생애부터 화장실을 소재로 한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기획자들이 모이다 보니 시나리오를 짜고 뒤엎는 작업이 반복되었고 시간은 어느새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의 첫날은 새벽 4시가 되어서 끝났지만, 소통이 단절된 가정에서 라디오라는 소재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나타내자는 단순한 기획 의도만 겨우 정해졌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회사 업무에 시달리던 아버지, 친구들의 자식 자랑에 할 말을 잃고 스트레스 받던 어머니가 딸이 라디오에 보낸 사연을 듣고 행복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버지를 섭외해야 하고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많아 또 다시 엮어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회의를 끝내고 자처서 추운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던 우리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시나리오 회의가 끝나고 출근하려 부산의 집으로 돌아갔던 멤버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던 그 시간에 그 친구는 밤을 새워 시나리오에 대해 고민했던 것입니다. 현역 PD인 그 친구는 나름의 생각과 아이템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직 부실한 우리 시나리오에 대해 계속 고민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한계가 느껴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다보니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수정하다보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화를 하는 엄마가 부끄러웠던 아들이 어느 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고 그 사연을 들은 엄마가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수화로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장애인이고 엄마는 그 아들에게 맞추느라 수화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내용도 마음에 들었고, 등장인물이 둘로 좁혀진데다 장소와 소품도 간단하니 촬영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촬영하는 시간들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방법이나 음향, 조명 등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돼지국밥, 밀면 등 부산의 맛있는 음식들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신대 조교님이 목소리로 출연해 주셨고,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동기 집사님이 엄마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아침과 고구렘을 넣은 토스트로 헌신해 주신 스태프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 장유진 PD님, 유지는 PD님, 강진구 교수님, 문홍철 교수님께서 때로는 직선적으로 때로는 칭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밤을 보내고 각 팀이 만든 영상을 감상하는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볼 꺼진 강의실에서 진행된 시사회는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웃음으로 완성된 영상을 감상하며, 고생스러웠던 촬영 과정도 생각났지만 보람으로 흐를 수도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초창기 멤버이자 선배로서 프로페셔널해지고 작품의 완성도도 높아진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작에 배 때 전해주시길 말씀처럼, 혼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고생하며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때로 양보하기도 하면서 각자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상캠프는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밤을 새가며 영상을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고생하고 수고해주신 교수님과 피디님들, 스태프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이 프로그램이 더욱 알차고 유익하며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었습니다. 고신대 교수님과 학생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의 모든 졸업생들이 이 영상캠프라는 좋은 경험을 통해 현장에 나가서도 좋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11기 모집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국민일보, CGN-TV 등 주요언론단체와 협력하여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여 1인 미디어 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실무능력을 길러주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왜 기독교미디어가 필요합니까?

가능한 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철저히 공정하되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해서 실득력 있게 전달하는 매체가 많아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판단이 건전하고 행동이 신실해질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를 개설한 이유이다!

—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교육기간 2014년 10월 18일 ~ 2015년 1월 30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6시
교육장소 서울 국제 크리스천 아카데미(SICA, CGN-TV)

접수기간 2014년 7월 1일 ~ 2014년 10월 4일
접수마감 2014년 10월 4일 (토) 18:00
접수방법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온라인접수](http://www.cmca.or.kr) [http://www.cmca.or.kr] ▶ '원서접수'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 (10/10-11 실시, 개별공지) → 합격자발표 (10/13)
교육비 등록금 350,000원 (총 14주 과정, 외부기관 후원으로 수업료 무료)
문의처 Tel. 02-745-7237 / E-mail cmca@worldview.or.kr (담당: 홍정석 간사)

*우수 학생에게는 취업추천서 발행 및 최우수 성적 1인에게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커리큘럼

기독교세계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고승욱(중앙대 교수)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창조, 타락, 구속의 원리, 신관(총신대 교수)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적 조형, 신관(총신대 교수)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문화에 대한 관점, 김승욱(중앙대 교수)
지아니올라 세단, 세간의 유행어, 신관(영남대 교수)
세계관의 의의와 영향, 기독교 세계관, 이승규(한신대 교수)

미디어 실무

사건으로 스토리텔링 하기(1박 2일 영상 M.T), 개인영상 연출(이론, 촬영 및 제작, TV뉴스제작(이론, 촬영 및 제작, 단편영화 제작(3주 4일 영상캠프 진행), 졸업작품(도반영의 및 다류 제작, 극장 필름로딩 실습)
기타 특강(인터뷰(이론, 이론, 조영미), 기독교 콘텐츠 제작의 이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www.cmca.or.kr